

성인의 시간 활용 배분과 평생학습 참여

- 2019년 한국 성인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생활시간의 약 60%를 일(노동)과 가사·돌봄에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 시간은 일평균 0.3시간에 불과함.
- 학습과 여가(재량)에 활용하는 자유허 시간은 일(노동)과 가사·돌봄에 사용되는 필수시간이 결정하는데, 개인 유지 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에 일(노동)과 가사·돌봄 시간 비중은 남성은 일에 편중(85:15)된 반면, 여성은 대략 50:50의 분포를 보임.
- 취업자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불완전 취업(시간제 등)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고소득 여성은 노동시간이 길지만 가사·돌봄 시간이 비례적으로 감소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시간 빈곤이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한부모 가구에서 자유허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과 돌봄 시간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약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자유허 시간임.
- 성인들의 상당수가 평생학습 참여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시간 부족이 제기되고 있음.
- 성인인구가 '일' 혹은 '가사·돌봄'이라는 정형화된 역할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임.
 - 성인인구에게 평생학습 참여는 일, 돌봄, 가사에 투입되는 필수시간과 별도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허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을 자유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을 요구함.
 - 따라서 성인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평생학습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

| 분석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년 자료

- 분석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¹⁾ 2019년도 원자료 중 '시간량' 데이터
- 분석 대상: 응답자 중 만9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학교(형식교육)에 재학 중이 아닌 성인 16,736명
- 분석 방법: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기술통계분석
- 유형 분류: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유형을 개인유지, 일(노동), 학습, 가사·돌봄, 여가(재량)의 5가지로 재분류
 - 개인유지 시간 이외에 네 가지 시간 유형을 필수시간(일과 가사·돌봄)과 자유허 시간(학습과 재량)으로 정의

[각주]

1) 5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10세 이상 가구원)의 24시간 동안의 시간활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함.



KRIVET 모바일용

〈표 1〉 통계청 시간 활용 유형 및 재분류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섭취,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필수 시간	일(노동)	일(노동)
	가사·돌봄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유타 시간	학습	학습
	여가(재량)	자원봉사 및 무급연구, 교재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1 주 |
1) 이동은 이동의 목적에 따라 위의 분류로 재배정하였음.
2) 주중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된 평균적인 시간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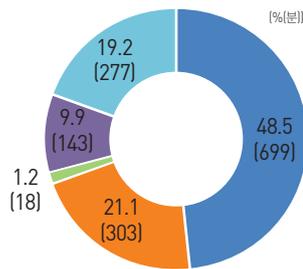
02 개인별 시간 활용 현황

1 개인의 시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일’과 ‘가사·돌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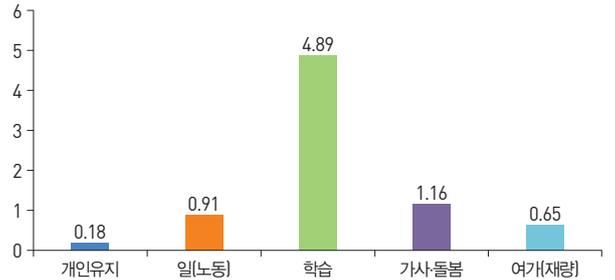
- 한국의 성인들은 개인유지에 48.5%, 일에 21.1%, 학습에는 1.2%, 가사·돌봄에는 9.9%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며, 문화 및 여가, 자원봉사, 사회적 관계 활동 등을 포함하는 재량시간은 평균 19.2%로 나타남.
- 시간 활용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변동계수²⁾로 살펴본 결과, 필수활동인 개인유지의 변동계수가 0.18로 가장 작고, 학습의 변동계수가 4.89로 가장 크며, 여가(재량), 일, 가사·돌봄의 순으로 변동성이 큼.
 - 개인의 시간 활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개인유지 활동이지만 변동계수는 가장 낮아 어느 정도 고정적인 활동임을 시사함.
 - 개인의 시간 활용에서 가장 편차가 큰 것은 학습이지만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며, 그 결과 다른 활용에 대한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과 가사·돌봄 등 필수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임을 볼 수 있음.

1 각주 |
2)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서로 다른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즉, 편차가 큰지) 비교할 때 사용됨.

평균 시간 활용 비율



변동 계수



〔그림 1〕 시간 활용의 유형, 비중 및 변동 계수

- 개인 특성별 시간 배분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은 ‘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성인 여성은 ‘일’과 ‘가사·돌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필수시간과 자유타시간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일수록 자유타 시간의 비중이 낮아 근로시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은 짧지만 가사·돌봄 시간이 길어 자유타 시간은 오히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돌봄 노동의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자유타 시간 중 학습시간이 더 긴 집단은 10~20대, 4년제 수료·휴학·중퇴, 비취업자 집단으로 나타나 내재적 학습동기에 의한 학습보다는 진학, 복학,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요구되는 학습 참여가 대부분임을 보여줌.

〈표 2〉 개인특성별 시간 활용

(단위: 시간)

구분	24시간 중 시간 활용					
	개인유지	일(노동)	학습	가사·돌봄	여가(재량)	
전체	11.7	5.1	0.3	2.4	4.6	
성별	남자	11.5	6.3	0.3	1.1	4.7
	여자	11.8	3.7	0.3	3.7	4.5
연령	19세	12.1	2.1	2.3	0.7	6.8
	20~29세	12.0	4.8	1.1	1.2	4.8
	30~39세	11.6	5.2	0.3	3.0	3.9
	40~49세	11.5	5.4	0.1	2.7	4.3
	50~59세	11.6	5.2	0.1	2.2	4.9
	60~64세	11.7	4.1	0.1	2.5	5.6

학력	중졸 이하	11.8	4.3	0.0	2.6	5.2
	고졸	11.7	5.1	0.1	2.4	4.6
	2~3년제 수료, 휴학, 중퇴	11.7	5.1	0.4	1.9	4.9
	2~3년제 졸업	11.7	5.3	0.2	2.4	4.3
	4년제 수료, 휴학, 중퇴	11.6	4.5	1.1	1.8	5.0
	4년제 졸업	11.6	5.1	0.5	2.4	4.5
취업여부	대학원 이상	11.4	5.5	0.2	2.3	4.6
	비취업	12.1	0.2	0.9	4.5	6.4
	취업중	11.5	6.8	0.1	1.6	4.0

03 취업자 시간 활용 현황

| 취업자 시간 활용에서 남성은 '일'이, 여성은 '일'과 '가사·돌봄'이 중요

- 취업자의 시간 활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시간제노동자의 자유허가시간 비중이 높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자유허가시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허가시간 비중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고용형태에 있어, 남성 노동자의 시간결정에서 핵심이 노동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그 차이는 가장 긴 집단(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과 가장 짧은 집단(무급가족종사자) 사이에도 1.2시간에 불과하여 평균적으로 긴 시간 일하는 경향
 - 여성의 경우도 노동시간이 더 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의 자유허가시간이 짧고, 시간제 근로자의 자유허가시간이 길지만,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사·돌봄 시간이 길어져 자유허가시간 증가의 효과가 상쇄됨.
 - 이는 자유허가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남성은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지만, 여성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3〉 취업자 유형별 시간 활용

(단위: 시간)

구분	남성					여성					
	개인 유지	일 (노동)	학습	가사 돌봄	여가 (재량)	개인 유지	일 (노동)	학습	가사 돌봄	여가 (재량)	
전체	11.4	7.4	0.1	0.9	4.2	11.6	5.9	0.1	2.6	3.8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11.4	7.4	0.1	1.0	4.1	11.7	6.4	0.1	2.3	3.6
	임시근로자	11.6	6.8	0.3	0.8	4.5	11.6	4.8	0.3	3.1	4.2
	일용근로자	11.5	7.2	0.2	0.9	4.3	11.6	4.9	0.1	3.4	4.1
	고용원 있는 자영업	11.6	7.8	0.0	0.8	3.8	11.4	6.7	0.0	2.5	3.4
	고용원 없는 자영업	11.5	7.1	0.0	0.9	4.5	11.5	5.6	0.1	3.0	3.8
	무급가족종사자	11.1	5.9	0.3	1.1	5.7	11.2	5.4	0.0	3.5	3.9
취업 형태	전일제	11.4	7.5	0.1	1.0	4.1	11.6	6.5	0.1	2.2	3.5
	시간제	11.7	6.4	0.4	0.9	4.7	11.6	4.3	0.2	3.4	4.4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11.6	5.7	0.5	1.0	5.3	11.5	4.3	0.2	3.7	4.4
	100~200만 원 미만	11.5	7.2	0.1	0.9	4.4	11.6	6.0	0.1	2.6	3.7
	200~300만 원 미만	11.5	7.6	0.1	0.8	4.0	11.8	6.5	0.1	2.1	3.5
	300~400만 원 미만	11.4	7.5	0.1	1.1	4.0	11.4	6.6	0.1	2.4	3.5
	400~500만 원 미만	11.4	7.3	0.1	1.1	4.1	11.2	6.7	0.1	2.5	3.5
	500~600만 원 미만	11.3	7.6	0.1	0.9	4.2	11.5	6.2	0.1	2.4	3.8
	600~700만 원 미만	11.4	6.9	0.1	1.2	4.5	11.8	6.2	0.0	2.3	3.7
	700~800만 원 미만	11.3	7.4	0.1	1.0	4.3	10.5	7.5	0.2	2.3	3.5
800만 원 이상	11.3	7.5	0.1	0.8	4.4	11.6	7.4	0.0	1.9	3.0	

-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볼 때 100만 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필수시간(일과 가사·돌봄) 편차가 거의 없지만, 여성은 고소득 구간(월 700만 원 이상)에서 노동과 가사돌봄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나타남.
 - 필수시간 내에서 일과 가사·돌봄 배분은 남성은 가사·돌봄 시간이 일정하여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필수시간의 길이가 달라짐.
 - 반면 여성은 고소득자(800만 원 이상)의 가사·돌봄 비중이 약간 낮고, 저소득자(200만 원 미만)의 가사·돌봄 비중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일과 가사·돌봄이 약 2.5대 1로 유사함.
 - 자유허가시간 내에서 학습시간 비중은 남성은 100만 원 미만을 제외하면 1.5~2.6% 사이, 여성은 0~5.3% 사이로, 소득에 따른 일정한 패턴은 확인되지 않음.

04 가구 유형별 시간 활용 현황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 돌봄부담 가구, 한부모가구의 부담이 확인

- 가구 유형별 시간부담은 <표 4>와 같이 나타남.
 - 노동시간은 맞벌이 가구인 유형1, 3, 5, 7에서 높게 나타나며, 가사·돌봄 시간은 ① '10세 미만 자녀 또는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10세 이상 자녀'가 같이 있는 경우, ② 맞벌이가 아닌 경우 높게 나타남.
 - 일과 가사·돌봄으로 구성된 '필수시간'과 학습과 재량시간으로 구성된 '자유허간'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했을 때, 돌봄부담이 있는 맞벌이(1, 3, 5)거나 맞벌이는 아니지만 돌봄 필요 가구원을 둔 경우(4), 그리고 돌봄부담이 큰 한부모(9) 유형에서 필수시간 비중이 70% 전후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상대적으로 재량시간의 비중이 큰 유형은 유형 6, 8, 10, 12로 맞벌이가 아니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유형6),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없어서 돌봄 필요가 없는 경우(유형8), 자녀가 아직 어린 한부모 가구(유형10), 그리고 1인 가구(유형12) 유형임.
 - 학습과 재량의 비중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재량시간 비중이 압도적이고,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유형(12)만 전체 자유허간의 5% 이상이 학습시간이었으며, 자유허간이 부족한 유형(1, 3)에서는 학습시간이 거의 없음.

<표 4> 생애주기 유형별 시간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배우자 (동거포함)	10세 미만 자녀 또는 돌봄 필요 가구원	10세 이상의 자녀	맞벌이 여부	필수 vs. 자율		일 vs. 가사돌봄		학습 vs. 재량	
					필수	자율	일	가사 돌봄	학습	재량
유형1	○	○	○	○	74.1	25.9	71.1	28.9	0.9	99.1
유형2	○	○	○	×	64.0	36.0	48.6	51.4	3.9	96.1
유형3	○	○	×	○	74.8	25.2	64.6	35.4	1.1	98.9
유형4	○	○	×	×	69.3	30.7	42.8	57.2	3.8	96.2
유형5	○	×	○	○	68.6	31.4	75.6	24.4	1.9	98.1
유형6	○	×	○	×	57.8	42.2	53.1	46.9	3.1	96.9
유형7	○	×	×	○	66.0	34.0	78.9	21.1	1.1	98.9
유형8	○	×	×	×	50.0	50.0	53.3	46.7	2.3	97.7
유형9	×	○	○	×	72.0	28.0	59.0	41.0	1.7	98.3
유형10	×	○	×	×	56.9	43.1	57.8	42.2	0.6	99.4
유형11	×	×	○	×	63.3	36.7	63.1	36.9	4.2	95.8
유형12	×	×	×	×	57.1	42.9	76.3	23.7	6.1	93.9
전체					62.7	37.3	65.8	34.2	2.9	97.1

05 시사점

- 성인의 자유허간(학습과 여가)은 필수시간(일과 가사·돌봄)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남성은 노동시간, 여성은 노동시간과 함께 가사·돌봄 시간이 중요함.
 - 따라서 성인의 자유허간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참여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시간의 단축 혹은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취업자 시간 활용에서 남성은 노동시간, 여성은 노동 및 가사·돌봄시간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며, 소득수준과 필수시간 부담은 큰 관계가 없으나 일부 고소득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확인됨.
 -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허간 확보 욕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필요함.
 - 여성노동자의 경우 가사·돌봄에 대한 지원이 노동시간 못지 않게 중요함.
- 가구 유형별 시간 배분에서 확인되는 것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자유허간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따라서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성인의 경우 일-가사·돌봄에 모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일-학습-여가-생활의 선순환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자유허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큼.

남 재 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